

문화유적지를 3D 그래픽으로 기록하는 '오픈 헤리티지 프로젝트' 공개

<https://artsandculture.google.com/project/cyark>

<http://www.cyark.org/>

세계 전역의 건축 유산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사이아크(CyArk)는 '오픈 헤리티지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15년간 세계 문화유적의 3D 그래픽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구글 아트앤드컬처(Art and Culture)를 통해 최근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사이아크의 설립자인 벤 카시라(Ben Kacyra)는 이라크 출신으로, 1960년대에 미국으로 넘어가 1990년대 상용화된 레이저 스캐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카시라는 2001년 탈레반이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는 모습을 TV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연재해와 인재(人災)로 언제든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적을 디지털 자료로 기록·저장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그는 2001년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오픈 헤리티지 프로젝트' 계획을 TED 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사이아크는 15년간 7개 대륙을 돌며 200여 개 유적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오픈 플랫폼을 통해 26개 유적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기원전 3,000년에 지어진 스카라 브레(Skara Brae) 촌락 유적부터 현대 건축기술 진수를 보여주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건축 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형태와 스케일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 수천 장의 사진과 고도의 3D 스캔 장비, 드론 등이 이용되었다.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유적의 형태와 구조를, 고해상도 카메라와 드론을 통해 색과 질감을 담아내 결합하는 방식으로 건축유산을 정교하게 재현하였다.

사이아크가 제공하는 문화유적의 3D 모델링 이미지



태국의 왓 프라시산펫(Wat Phra Si Sanphet) 사원

자료: <https://poly.google.com/view/dOG0USmNS8O.greenlaneways>



그리스의 페레이네 샘(Peirene Fountain)

자료: <https://poly.google.com/view/37HHIXpViDh>

©CyArk